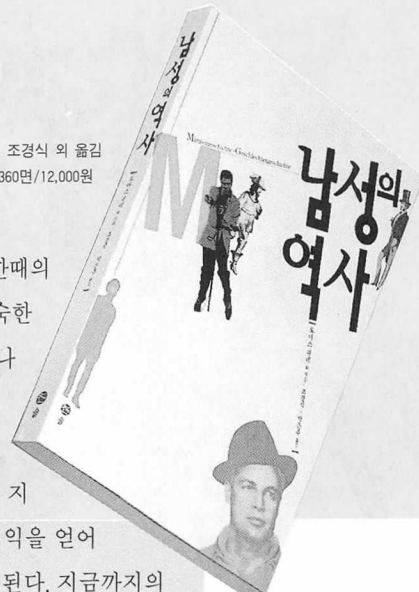


지배자로 오인돼온 남성 뒤집어보기

토마스 쿨네 외의 《남성의 역사》를 읽고

윤승준 | 인하대 사학과 교수

지금까지의 역사는 곧 남성의 역사이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억압적이고 이중적인 성 담론에 포섭돼 자발적으로 군대에 동원되는 ‘씩씩한’ 남성들 또한 가부장적 성 담론의 피해자일 수 있다. 기존의 남성성은 이데올로기적 가정일 뿐 현실 속의 남성성은 유연하고 부서지기 쉽다.



조경식 외 옮김
술/A5신/360면/12,000원

성(gender) 담론은 이제 한때의 유행을 넘어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거리가 됐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페미니즘 차원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다. 남자란 모두 여성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온갖 이익을 얻어 온 가해자 집단으로 치부된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곧 남성의 역사이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 없다는 식이었다. 성의 역사는 곧 여성의 역사였으며, 성 연구는 여성학의 영역으로만 간주돼왔던 것이다. 하지만, 성이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존립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지배자’ 남성을 아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 아닐까.

남성은 가부장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다

《남성의 역사》(술)는 대략 이런 문제 의식으로 성 담론 가운데 그동안 누락된 남성관련 부분을 매우려는 시도로 저술했다. 두명을 빼고는 모두 30~40대 학자 열명이 공저자로 참여해 서양 남성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데, 비록 독일의 경우를 주로 다루고는 있지만 현대 남성성의 다양한 측면을 역사적으로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책이다.

몇 해 전, IMF 사태가 시작되면서 일부 명예 퇴직자, 실직자 등이 남모르게 집과 공원을 오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출해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잤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자기의 신상 변화에 대해 가족과 친지에게 솔직히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필시 ‘사내’로서의 자책감과 자괴감, 체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그 원인이었을 게다. 여기서 우리는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 가부장 제도의 집단적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얽매어 있는 듯하다.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여성 작가 시몬 드 보봐르는 일찍이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 남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과정이 증명하듯, 흔히 여성스러움이니 남자다움이니 하는 것이 생래적인 불변의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조장되고 강요된 결과임은 오늘날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가설일 뿐이다.

남성성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적 가정일 뿐

서양의 경우, ‘현대적인’ 성 체계는 18세기 말에 출현했다. 그리고 그것은 양극적 성격을 띤 것으로, 부르주아 문화를 특징짓는 좀더 포괄적인 양극성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즉, 자연-문명, 감정-이성, 수동성-능동성 등의 이분법이 그대로 남·녀 관계에 투사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성의 대립 구조를 낳았다. 유약·우유부단·종속성·순종·감정(여성성)에 대조되는 의지·대담·독립·공격성·지성의 남성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성적 ‘본질’이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 가정일 뿐, 실제 남·녀의 수용방식이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책의 지은이들이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리하여 독일 남자들이 군대·스포츠·의(衣)생활·음주·결투·정치 등의 영역에서 위로부터의 출세

우기식 차별적 성 강령에 길들여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공적인 틀 내에서 남자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성적 특성들을 자기화해나갔다. 그런가 하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남·녀 관계를 대칭·병렬이 아닌 지배·종속 차원으로 왜곡시키는 탄력적 양태도 드러났다.

이 책에서 주목되는 또 한가지 탁월한 성과는 남성성의 취약성과 내부 경쟁에 관한 분석이다. 이 둘은 남성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현실 속의 남성성은 견고하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결투와 음주 문화, 청년 정치조직, 벨랑콜리한 군가 등에서 그런 측면이 세밀하게 관찰되고 있다. 또한 남성성은 실로 복잡·다양해서 여럿이 동시에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한층 강화돼 기존 성 강령의 양극성을 무너뜨리는 경향까지도 일부 나타나는데,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가 그 한 예로 소개된다. 그것은 이성애에 맞서는 또다른 남성성의 표출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성이 정치적인 범주라는 사실은 이 책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까지 강조돼 온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 대립뿐만 아니라 “한 시대, 한 사회 그리고 한 남성”에게 서로 다른 남자다움의 표상들이 벌이는 제휴와 갈등, 경쟁도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